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④ 어머니의 사랑은 부처님 사랑

너의 때문에 산다

대학생 김군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후 어머니는 혼자서 김군과 동생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살기가 참 힘들다. 어떤 편 살고 싶지가 않구나.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산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다시 다짐이라도 하듯이 "알겠다, 너희 때문에 살아. 너희가 내 힘이야"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그 맑은 중학생이었던 김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사신다!" 김군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신문배달 등 아르바이트하느라 고된 삶을 하던 김군은 1학년 후

마니의 사랑이 있어 잘 버틸 수 있었다. 여동생도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 주었다. 김군이 어렵게 대학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하며 서럽게 울었다.

어머니의 목걸이

학비대출을 받아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군은 1학년 후

고 군대에 가게 되었다. 성격 좋은 그는 친구가 많았다. 그러나 군에 가서 지내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그리웠다. "물론 친구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하고 격려해 주는 이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저를 위해주는 사람은 가족, 어머니란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김군은 군에서 야근 쓰며 돈을 모았다. 휴가 전까지 열심히 모으자 약 15만원이 되었다. 휴가 받으면 꼭 해야

할 일을 결심한 바 있었다. 집에 오자마자 김군은 "엄마, 같이 나가세요. 꼭 가실 데가 있어요"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내 금은방으로 갔다. 거기서 어머니를 위해 목걸이를 골라 드렸다. 어머니는 안사겠다고 버텼지만 김군이 이겼다. 어머니는 "이 돈으로 너 필요한 것 사야지, 내가 이런 것 무슨 필요가 있니" 하였다. 그러나 목걸이를 걸어드리는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거 사지 말자"고 해서 김군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당신도 여자이신데 왜 예쁜 목걸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실까.

그 돈으로 오랜만에 만나 친구들과 실컷 놀 수도 있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물론 많았다. 그러나 그보다 어머니가 소중했다. "엄마는 나와 동생 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하세요.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 때문에 사셨잖아요. 이제는 허리도 안 좋으셔서 집에 서 쉬셔야 할 텐데 여전히 공장에 다

니시고 있으니까 걱정이예요." 제대하고 복학한 후에도 어머니는 그 목걸이를 소중히 걸고 다닌다고 한다. "그런데 그 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목걸이를 해 드린 제 마음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보다 훨씬 기쁘고 뿌듯했던 거예요. 군 생활 내내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목걸이를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 자신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일체 중생의 부모인 부처님

어느 큰스님께서는 "잘생긴 남의 어머니보다 못났어도 내 어머니가 소중하다"고 하시며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같다고 하였다. "자식이 물에 빠질 때 부모는 그냥 뛰어들어서 건진다. 자기가 죽는지를 모른다. 거기 무슨 이유가 붙겠는가? 그와 같이 순간에 뛰어 들어 건지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똑같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부모의 참 사랑, 그것이 자비이다." 참된 수행자란 일체 중생에게 바로 이와 같은 부처님 마음을 내는 사람이 아닐까.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앙계시판

●비로자나국제선원 기초불교영어회화 강좌=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이 내년 1월 7일~2월 25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제3기 기초불교영어회화강좌를 실시한다. 총 8주 동안 진행되는 제3기 기초불교영어회화강좌에서는 사성제 팔정도 중도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불교영어와 회화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업료는 월 4만원, 1년 이상 수강하는 사람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영어담마스쿨교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앞서 12월 29일 오후 3시에는 어린이 영어담마스쿨이 개강한다. 초등학교 2~5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참선과 토론을 병행한 영어 수업이 이루어진다. (02)6012-1731

●해암 스님 열반 6주기 추모법회 및 법보전 석가모니불 복장불사=합천 해암사는 조계종 제10대 중창 해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6주기를 맞아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을 12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해인사 부도전에서 봉행한다. 한편, 해인사는 정경판전내 법보전 석가모니불 복장불사를 진행한다. 법보전에 모실 석가모니불 조성 불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복장불사에서는 사리함을 비롯해 각종 다라니, 칠보, 오양, 흑수정, 백수정, 연봉 등 복장 장엄을 비롯해 봉안된다. 이와 함께 신도들이 직접 사경한 <반야심경> 사경과 소원문도 함께 봉안될 예정이다. (055)934-3022

●교사불자련 겨울수련회=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내년 1월 5~7일 장성 백양사에서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사찰예절과 선원장 동참 스님 법문, 108배, 참선,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법문, 암자순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02)733-7278

●신홍사 겨울수련회=화성 신홍사가 성인·청소년·어린이 대상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1월 5~6일 제3차 성인 겨울수련회, 1월 10~13일 제53차 청소년 겨울수련회, 1월 17~19일 제60차 어린이 겨울불교학교가 각각 열린다. (031)357-3916

●반야라이온스클럽 노인들기=서울반야라이온스클럽이 재가복지대상자 중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100명을 선정해 전기침질맥을 방문해서 전달한다. 12월 27일 오후 6시 옥수중앙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전달식이 열린다. (02)2282-1104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41> 끝

연재를 마치며

최근 불교와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담심리학과에서는 불교를 활용하여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려 하고 있고, 불교계에서는 상담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아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려 하고 있다. 불교와 상담 양 분야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불교 교리나 수행법을 상담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와 상담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불교 대학원 두 곳에 불교상담학 전공이 개설되었다. 불교상담심사 자격제도가 마련되었고, 불교와 상담 관련 학회도 창립되었다.

그러나 '불교상담'은 아직 '불교와 상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불교와 상담 양 분야에서 불교 그리고 상담을 비교·대조해 가며 접근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고, 불교 수행법 가운데 일부를 상담에 조스스레 적용한 뒤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불교에서 상담심리학과 불교를 비교하고 분석해 본 것은 필자에게도 큰 공부가 되었다. 연재 첫 회에서 언급했듯 상담심리학을 불교에 견주어본다는 것은 무량한 바닷물과 실개천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연재를 마무리하는 지금 상담심리학이란 지류가 통해 광대한 불교를 세로이 만난 느낌이 든다. 상담심리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교는 피내도 피내도 마르지 않는 감도의 샘물이었다. 온갖 상담이론이 다 녹아 있고, 갖가지 상담 기법이 다 들어 있었다. 다만 오늘날과 융어가 다르고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날 뿐이었다. 근본적인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큰 것은 현대 상담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생활적 문제, 심리적 어려움, 정신적 장애 등을 초

점으로 삼고 있고, 현실 생활에서 잘 살아가거나 인격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만, 불교는 인간은 물론 온갖 존재의 근원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존재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상담심리학과 불교를 비교,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불교는 주관과 객관, 신과 인간, 몸과 마음 등 서양의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현대 상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불교는 다양하면서도 효과적인 상담 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경의 수많은 교화 사제, 그리고 다양한 수행법을 상담에 적절히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심리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교는 상담자 교육 및 성장에 유용하다. 불교교리와 수행법은 모두 개인의 성장, 궁극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곧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 등과 일치한다. 넷째, 다른 상담이 아닌 바로 불교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심리학의 제4세력이라고 하는 자아초월심리학은 개인 내적인 문제를 벗어나 초월적인 단계로 성장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수행과정에서 심리적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불교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서 '불교상담학'이란 고유한 분야의 탄생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불교와 상담 양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학문적 이론 정립은 물론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면 불교상담학은 기존의 상담심리학의 한계를 넘어 더욱 수승한 도리로 인류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 문병성

석청은 뿔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 꿀이다. 네팔과 티베트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강장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 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 급 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사)호국불교전체협의회, 군경스포츠연맹

석청의 효능은?

석청은 일반 도종꿀에 비해 비타민, 토코페롤, 칼슘, 게르마늄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과당, 포도당, 갈륨, 아미노산, 무기질 등 70여 가지의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물질이 골고루 들어있다. 이런 이유로 꼭 약용이라는 부분을 떠나 일반 강장식품으로도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석청은 평소에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의 생리작용이 원활해져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허열이 제거되고, 눈에 띄게 건강이 회복된다. 네팔 왕실 산하의 '히말라야 석청 연구소'에 따르면 석청은 현대인의 불치병인 암, 만성신경통, 혈액순환 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중풍, 야맹증, 간염, 두통,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복용 사례에도 불치병인 암, 몇 년째 어깨가 결렸던 견비통, 만성신경통, 치질, 변비가 석청을 복용한 후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석청은 일반 꿀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및 빈혈 예방, 피로회복, 불면증 해소, 숙취, 기침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빨라가 사서 고산삼 마음은 축제 분위기로 바뀔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구입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아래의 보금 석청은 참석청입니다.

●서울 02)3436-7845 ●중부 031)634-3519 ●대구/경북 054)464-4735 ●부산/경남 051)782-9386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석청보금가액 중 일부는 네팔 불우이동들을 돕기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 3명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